



4·11 총선 표밭은 지금

무소속 1명에 민주통합 4명 공천 경쟁

광주 서구 갑 선거구는 최근 한나라당을 전격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용화 후보와 치열한 당내 공천 경쟁을 뚫고 공천권을 거머쥔 민주통합당 후보 간의 한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공천 경쟁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조영택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40대 젊은 후보인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면서 조의원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박혜자 호남대 교수와 송재선 전 광주시의원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초반에는 조의원과 송후보가 일대일 구도를 보였지만, 2명의 후보가 더 경선에 나서면서 향후 선거판도에 영향이 예상된다.

조영택 의원은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경선에서 재경선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권을 거머쥐었지만, 79.1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할 정도로 지역 내 탄탄한 입지를 확보했다.

당선된 뒤에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당 대변인을 맡을 정도로 당내 입지를 넓혔고, 국비사업과 특별교부금 등 지역 내 국비확보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본스타 문제 등으로 시민사회단체 등 5개 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 서구청장 선거와 연이어 치러진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연속

정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무소속	민주통합당
이름	박혜자	송갑석	송재선	정용화	조영택
나이	55	45	54	47	61
학력	·전) 전남도 여성복지국장 ·현) 호남대교수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광주시 의원 ·현) 호남대 초빙교수	·전) 청와대 비서관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광주시장 후보 ·전) 국회의원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국회의원

※ 후보는 가나다순

조영택 재선 가도 40대 송갑석 도전

한나라당 탈당 정용화 '표밭갈이' 관심

박혜자·송재선 호남대 교수간 경쟁도

폐한 점이 조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의원 및 구의원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일부 후보들이 지역구 내에서 반(反) 조영택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조의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조의원은 최근 각 언론사의 협력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송 후보는 지난 2010년 서구 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경선에서 패한 뒤 출근 지역에서 표밭을 다진 탓인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조의원을 가장 위협하는 인물로 뽑히고 있다. 광주일보 설 연휴 여론조사에서는 조의원을 앞지르고 당내 경선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여성가족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박 교수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게 정

송 후보는 1990년 지방대생 최초로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생운동의 선봉 역할도 했다. 이 때문에 5년 이상의 유통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한 송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 청년위원장, 중앙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박혜자 호남대 교수는 뒤늦게 당내 경선에 뛰어들면서 공천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반(反) 조영택 표밭'이 송 후보에게 집중됐다면, 이러한 표심이 박 교수 등으로 더욱 분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여성가족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박 교수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게 정

치권의 분식이다.

아직 약세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송재선 전 시의원도 당내 경선을 위해 열심히 표밭을 누비고 있다.

또한, 서구 갑 선거는 정용화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 후보로 등장한 점도 향후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 후보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11.14%의 득표율을 얻었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 나와 14.2%의 득표율을 올리는 등 한나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두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다.

하지만, 정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옷을 벗은 만큼 지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낼지도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 포인트다.

최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한나라당 탈당 효과'로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지만, 민주통합당 후보가 정해져 일대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주통합당 후보를 이겨낼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명숙 대표 '모바일 투표 도입' 선거법 개정 촉구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5일 "모바일 투표가 낮은 정치, 특히 금권정치와 동원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고위원회에서 "돈 봉투 사건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중앙당을 전국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당 대표

와 최고위원을 없애는 쪽으로 정당 구조 개편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이런 것을 가지고 금권정치나 동원정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지금까지의 국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번지수가 다르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전당대회 경비 국고 지원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지금까지의 국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번지수가 다르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전당대회 경비 국고 지원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복합상가(매매)

■봉선동 1층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증금20억 월임대료1,200만원

■봉선동 1층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보증금 9억 월임대료 1,200만원

■첨단동 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입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첨단동 복합상가 120평 평당 790만원(9억5천만) 입대보증금 8,000만원 월임대료 500만원

■4월 5층학원건물(건물평수 350평 (매기5억8천) 임대보증금 천원/월/평일대리30만원)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 상무지구(유형기능,식당영업점)

■상무지구 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변경기기자리코너)

■상무지구1,469㎡(142평)-매기 1,200만원(상무지구)(유형기능)

■상무지구 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장앞)

(호화시아웃오피스텔등 청탁)

■상무지구1,470㎡(약1,352평)-평당330만원(예식장 적합)

및축주문 발송합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휴 011-609-5221

(상무지구 아비동 갑자기 1층)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60평

-매매금액: 45억원

-용지금액: 20억원포함

상무지구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증금5천만원/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카파)

상무지구 롯데시네마 11층

-분양면적 : 600평

-전용면적 : 350평

-대형음식점, 빌레 적합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오피스텔 상가

●시청앞 오피스텔상가(1층)분양가 이하 급매 1,174㎡.

매매가 상담후 결정. 분할매각 가능 합니다.

투자 및 사업용 토지.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4,260㎡. 제2종일반주거역.

35m 계획도로 접한 매매가 3.3㎡당 110만원.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앞 1,117㎡. 제2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300만원.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뒤편 628㎡ 제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105만

●광산구 속초동 지하철 치량기지앞 제1종일반주거지역. 629㎡.

3.3㎡당 95만

●광산구 속초동 토지 1491㎡. 제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325만원.

●광산구 속초동 토지 1491㎡. 제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325만원.